

이 책은 우리 도시의 변천과정과 그 이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기철학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점이 돋보이는데, 조영무부터 이어지는 우리 도시에 대한 공간개념의 연구가 지은이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은 나에게겐 커다란 희망이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개념은 도시와 건축과 자연과 사회학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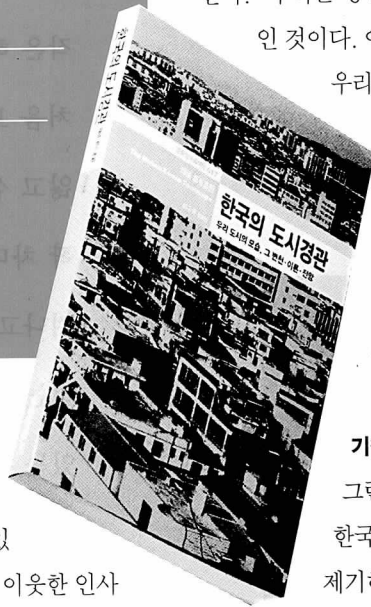
책갈피산책

《한국의 도시경관》

우리의 눈으로 본 우리의 도시

이규목 지음
열화당/A5신/262면/13,000원

함성호 | 시인·건축평론가



“서울에 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종로의 열광적인 분위기이다. 여기에는 최신의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을 한 십대의 무리들이 옷가게에서 앞다투어 싼 물건을 고르고 있다. 이 패션과 스타일의 본거지와 대조를 이루는 곳은 이웃한 인사동의 골동품 거리이다. 주말을 보내는 가장 즐거운 일과 중의 하나는 인사동에서 윈도 쇼핑을 하며 진열장 너머 도자기병과 서예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이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는 할렘(?)

이 글은 어느 외국인이 본 서울의 느낌을 그대로 옮겨본 것이다. 우선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이방인들의 눈에는 경이로 다가온다는 것이 더 놀랍고 신기하다. 나는 가끔 일 때문에 외국 건축가들을 마중하느라 공항에 다녀오는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 도시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라서 깜짝 놀라곤 한다. 가장 놀라운 일은 강남의 한강변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를 보곤, “저 곳이 서울의 할렘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할렘이라니? 서울의 부자들은 다 강남에 살고, 그 강남에서도 알부자들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아무리 무지한 이방인이라고 해도 뉴욕의 빈민가로 착각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저 곳이 한국의 최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해주면 그들은 다들 놀란다. 놀람의 연속이다. 나도 놀라고 그들도 이어 놀란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런 쌍방의 놀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서로의 반응은, 이방인은 마치 한국을 설명하는 새로운 코드를 하나 잡았다는 식이고 나는 웬지 석연찮다. 그 석연찮음에는 당연히 수입된 우리의 근대를 반성해보는 어쩔 수 없는 자의식이 섞여 있다. 그것은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에서만 쓰는 저들의 관습과 주방에서도 쓰는 우리의 관습 사이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같은 것일 것이다. 결국 두루마리 휴지는 저들의 발명품이고, 그 원래의 용도를 왜곡해서 쓰는 것은 우리라는 이 석연찮음.

나는 그럴 때마다 옆자리에서 그런 석연찮음을 즐겨워하는 이방인을 내버려두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도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다. ‘우리는 당신네와 다르다’는 말 한 마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규목의 《한국의 도시경관》(열화당)은 그 부채처럼

우리 도시의 변천과정과 그 이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서구의 유토피아와 우리의 유토피아에 대한 비교를 이 책의 맨 앞장에 두고 있는 것도 시사적이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차이가 우리 도시를 보는 이방인의 즐거움과 나의 석연찮음을 좁혀주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철학적 관점에서 우리 도시 고찰해

그런 의미에서 이규목이 서양의 건축은 매스(mass)고 한국건축의 본질은 공간이라는 김성우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양건축에서도 분명 매스가 보이고, 한국건축은 매스와 외부공간을 동시에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은 단순하게 외부 공간이 아니라 풍수에서 얘기하듯이 집이 들어서서 그 지역의 산과 강을 포함하는 자연과 집의 문제라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말하자면 한국의 건축은 내부공간, 외부공간 그리고 매스로 얘기되는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관계 맺어지는 랜드스케이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규목도 이 부분을 우리 도시를 설명하는 여러 부분에서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건축이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개념과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풍수지리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하고 있는 학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개념은 도시와 건축과 자연과 사회학을 통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철학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이규목의 관점은 매우 소중하다. 조영무부터 이어지는 우리 도시에 대한 공간개념의 연구가 이규목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은 나에게겐 커다란 희망이었다. ■

함성호씨는 강원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문학과 사회》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건축전문지 《공간》으로 건축평론이 당선돼 건축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집 《성 타조마할》, 산문집 《허무의 기록》(민화당 인성) 등을 펴냈다.